大同哲學會 논문집
「大同哲學」 제52집 2010. 9.

‘존재론’의 신기루 — ‘존재’가 우리에게도 유의미한 철학적 문제인가?

한 석 환*

요 약 문

이 글의 목표는 ‘존재론’이라는 표제 아래 진행되는 철학적 논구를 근본적으로 되짚어보는 것이다. 이른바 ‘존재론’ 논의가 우리에게도 유의미한 철학적 작업이냐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물음이다. 다소 도발적인 이 물음에 이 글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존재론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일정한 조건하에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존재론’ 논의가 유의미한 철학적 작업일 수 없는 이유는 대체로 이렇다: 서구어로 된 서술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는 ‘be (그리스어 einai)’ 동사인데, 형태상으로는 각 문장에서 동일하지만 그 의미는 동일하지 않다. ‘존재론’은 바로 그 다의성을 탐구하는 철학의 분과이기에 언어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be 동사 역할을 하는 문장 구성요소가 없다. 따라서 한국어에는 의미론적으로 ‘존재’ 문제를 일으킬만한 소지가 아예 없다.

오컨대 한국어의 논리를 좇아 철학하게 되면 이른바 ‘존재’ 문제 같은 것은 유의미하게 제기되지 않는다. 이 땅에서 한국어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존재론’ 논의는 허공에 떠있는, 뭔가 심오한 것을 다루는 것 같지만 실은 아무것도 다루는 게 없는 가짜 담론, 속 빈 강정이다.

※ **주요어:** ‘is(하는 것)’, 실제, 제일철학, 존재(론), 한국어.

한국어로 된 ‘존재론’¹⁾ 관련 논문과 저술을 검색해 보면 적지 않은 양의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많은 연구물을 다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읽은 범위 내에서 말한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철학적 논의가 일반적으로 쉽진 않지만 존재론의 경우 그 정도가 보통을 넘는다. 왜 그럴까. 독자가 아둔하기 때문일까. 그런 경우

*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

1) ‘존재’, ‘존재론’, ‘존재론적’ 같은 표현은 해당 서구어의 번역어로서 해당 서구어를 대신한다는 의미에서 따옴표를 붙인다. 그러나 빈번한 등장으로 변화한 감이 있어 아래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따옴표를 붙이지 않는다.

가 없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는 여기서 논외로 한다.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서구어로 된 존재론 연구를 어렵지 않게 소화해내는 독자이다. 요는 그런 독자가 유독 한국어로 된 존재론 논의는 따라가기 어려운 까닭은 무엇이나는 것이다. 이런, 어쩌면 단순한(?) 물음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이 글의 목표는 ‘존재론’이라는 표제 아래 진행되는 철학적 논구를 근본적으로 되짚어보는 것이다. 이른바 ‘존재론적’ 논의가 우리에게도 유의미한 철학적 작업이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물음이다. 그 논의가 한국어로 진행되는 논의임은 물론이다. 다소 도발적인 이 물음에 이 글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아니, 제한적으로 긍정적이라는 편이 더 정확한 진단일 듯싶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이 글의 과제이겠는데, 논의는 이렇게 진행된다. 먼저 서양에서 ‘존재’ 물음이 어떻게 해서 철학적 문제로 대두되었는지 살펴보겠다. 이어서 그런 존재 물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떤 처방을 내놓았는지, 바꿔 말해서 그가 존재론을 어떻게 정초하였는지 살펴보겠다. 그런 다음 우리의 ‘존재’ 논의와 아리스토텔레스 식의 존재론이 어떤 편차를 드러내 보이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겠다.

1. ‘존재’ 물음의 성격과 발단

‘존재론’이라는 말이 언제 누구에 의해 처음 쓰였는지 꼭 짚어 밝히는 것은 해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겠지만, 최소한 문헌상으로는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²⁾ 즉 그 말은 1613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출판된 고클레니우스의 『철학사전』에 처음 나온다. 그 뒤로 여러 사람의 저작에 같은 말이 등장하지만,³⁾ ‘존재 일반의 이론’, ‘존재 개념의 논리학’이라는 의미의 철학 전문용어로 자리를 굳힌 것은 독일 계몽주의 철학의 거두 볼프(1679-1754)에 의해서였다.⁴⁾

2) B. Weissmahr, *Ontologie*, Köln 1985, ²1991, S. 9 (『존재론』, 허재운 옮김, 서광사, 서울 1990, 13쪽) 참조. 이에 대해서는 백종현, 「존재론」, 『철학사상』 16호 별책 제2권 제1호 철학의 주요 개념 1,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2003, 37쪽 이하도 참조.

3) A. Calovius (Rostock 1636)와 J. B. du Hamel (Paris 1687)의 저작에 ‘Ontologie’라는 말이 나온다. J. Clauberg는 1656년 암스테르담에서 출판된 자신의 형이상학의 표제에서 같은 말을 썼다 (처음에는 ‘Ontosophia’라는 형태로).

4) A. Diemer, Art. ‘Ontologie’, in: A. Diemer/I. Frenzel (Hrsg.), *Philosophie*, Fischer Bücherei, Frankfurt/M. 1967, S. 210 참조. 1730년 프랑크푸르트와 라이프치히에서 출판된 볼프의 『제일 철학 곧 존재론(*Philosophia prima sive ontologia*)』은 그의 다른 저술들과 함께 18세기 강단

이처럼 ‘존재론’이라는 명칭이 전문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비교적 오래 전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표제 아래서 논의되는 문제는 철학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된 문제이다. ‘존재론’이란 말 그대로⁵⁾ ‘존재자’(Seiendes) 내지 ‘존재’(Sein)를 다루는 학문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학적 기틀이 마련된 철학의 핵심 분과이다.

가. ‘존재’ 물음의 발단

그러면 왜 ‘존재’ 또는 ‘존재자’가 문제인가? 우선 몇 가지 예문을 들어 보자. 편의상 영어로 예문을 들겠는데 왜 그러는지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점차 밝혀질 것이다. 여기서는 그냥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짚어내기 위해 그런다고 해두고 넘어가자.

(A-1) God *is*.

(A-2) The Evening Star *is* the Morning Star.

(A-3) John *is* clever.

같은 내용을 이번에는 독일어 문장으로 표현해 보자.

(B-1) Gott *ist*.

(B-2) Der Abendstern *ist* der Morgenstern.

(B-3) Hans *ist* klug.

영어와 독일어간에 차이가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무리 없이 옮길 수 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영어에서는 ‘is’가, 독일어에서는 ‘ist’가 예외 없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왜 ‘is’(와 ‘ist’)는 약방의 감초처럼 매번 등장하는 것일까? 철학적 호기심으로 충만했던 이들은 그것이 궁금했다.

이런 물음에 처음 눈을 뜬 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었다. 그들에게도 영어의 ‘be’ 동사, 독일어의 ‘sein’ 동사에 해당하는 ‘einai’ 동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듯이 그들도 한 동안 시행착오를 범하며 암중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한 예로 이른바 소피스트들은 예의 저 ‘is’(정확히 말하면 ‘is’에 대응하는 그리스어 ‘esti’)의 다양한 쓰임새를 미처 몰랐다. 그래서 그들은 오류를 범했다. 그들이 범한 오류란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⁶⁾

철학의 전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5) 우리가 ‘존재론’으로 번역해 쓰는 ‘ontology’[영어](‘Ontologie’[독일어], ‘ontologia’[라틴어])라는 용어 자체가 ‘onta’(beings, 존재자들)와 ‘logos’(학문, 이론)의 합성어이다.

6) 이에 대해서는 E. Tugendhat/U. Wolf, *Logisch-semantische Propädeutik*, Stuttgart 1983,

Socrates is a man.
 Coriscus is a man.
 Therefore Socrates is Coriscus.

이 추론은 형식적으로 보면 ‘매개념 부주연의 오류’와 ‘양 특칭전제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추론의 바탕에는 두 전제에 나오는 ‘is’가 ‘is identical with’의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런 바탕 위에서 Socrates와 Coriscus가 동일인물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이 거리낌 없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처럼 계사 ‘is’가 ‘is identical with’의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그에 덧붙여 서술문에서 술어가 표현하는 것은 그 주어가 지시하는 것과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 예로 다음 문장을 보자: “Socrates is bald.” 여기서 술어 ‘bald’가 표현하는 것은 ‘the bald’이겠는데, 이것은 주어 ‘Socrates’가 지시하는 것, 즉 Socrates와 다른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저들이 기본적으로 상정하는 바에 따르면, 계사 ‘is’는 ‘is identical with’를 의미하므로, 결국은 Socrates가 자신과 다른 것과 동일하다는, 역시 말이 안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야말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⁷⁾

비슷하게 생각했던 다른 경우도 있다. 처음으로 ‘is’ 물음에 눈을 떴던 파르메니데스는 위와 같은 모순을 범하지 않기 위해 ‘is’(하는 것) 하나만 있다고 주장한다.⁸⁾ 그의 단편을 영어로 옮겨 적으면 이렇다.⁹⁾

The one, that [it] is and that it is impossible for [it] not to be, is the path of

S. 202 (『논리의미론적 예비학』, 하병학 옮김, 철학과현실사, 서울 1999, 184쪽) 참조. Arist. Soph. El. 166b32-36 (『소피스트적 논박』, 김재홍 옮김, 한길사, 서울 1999, 75쪽)도 참조.

7) Tugendhat/Wolf (1983), S. 202 참조. 계사와 동일성을 구별하지 못한 것은 비단 고대 그리스에서만 일어난다. 근대의 헤겔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의 『논리학』(*Wissenschaft der Logik*, hrsg. von G. Lasson, Bd. 1, Felix Meiner Verlag, Hamburg 1969, S. 76)에서 “판단은 주어와 술어의 동일성 관계이다”(“Das Urteil ist eine *identische* Beziehung zwischen Subjekt und Prädikat”)라고 말한다. 그 역시 서술적 판단이 동일하지 않은 것의 동일함을 표현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서술적 판단이라는 게 모순을 표현하는 셈이다. 그러나 헤겔은 파르메니데스와 달리 모순을 기피하지 않는다. 원래 ‘Sein’에는 모순의 계기가 있다고 함으로써 문제를 돌파한다. 이에 대해서는 Tugendhat/Wolf (1983), S. 203 참조.

8) <‘is’하는 것>이란 다른 글에서라면 ‘존재자’(Seiendes)라고 했을 그런 것이다.

9) 파르메니데스 단편 인용은 H. Diels/W. Kranz (= DK), *Die Fragmente der Vorsokratiker*, Weidmann, Berlin 1903, ¹⁷1974에 따른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김인곤 외 옮김, 아카넷, 서울 2005 참조. 영어 번역은 G.S. Kirk/J. E. Raven/M. Schofield (ed.), *The Presocratic Philosophers. A Critical History with a Selection of Tex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57, ²1983에서 인용 (이탤릭체로 처리된 글자는 인용자가 강조한 부분임).

Persuasion (for she attends upon Truth); the other, that [it] *is not* and that it is needful that [it] not be, that I declare to you is an altogether indiscernible track: for you could not know what is not — that cannot be done — nor indicate it. [DK28B2]

What is there to be said and thought must needs be: for *it is there for being, but nothing is not*. [DK28B6]

줄여 말하면, ‘is(그리스어로 ‘estin’)만 가능하고, ‘is not’(‘ouk estin’)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is’(하는 것)만 ‘is’하고 ‘is not’(인 것)은 ‘is’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감이 안 잡히기는 매한가지일 텐데, 달리 설명하면 ‘is’(현재긍정!)는 어디까지나 ‘is’이지 거기에 ‘not’을 붙여 ‘is not’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모순이라는 것이다. ‘is not’ 같은 것은 얘기될 수도 없고 생각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is’(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is’(하는 것)만 ‘is’한다는 것이다.¹⁰⁾ 너무도 자명한 얘기이다.

위의 예문 (A-1), (A-2), (A-3)로 돌아가 보자. 각 예문의 ‘is’에 어떤 차이이라도 있는가. 차이가 있는지 어떤지를 말할 수 있으려면 ‘주어’와 ‘술어’의 문법적 의미와 의미론적 의미부터 밝혀져야 한다. ‘주어’와 ‘술어’란 원래 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문법적으로 ‘주어’와 ‘술어’는 서술문의 최소 구성단위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론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의미론적으로 말하면 서술문은 ‘어떤 것(술어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주어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ti kata tinos) 단언되는 형식의 문장이 된다.¹¹⁾ 그런데 술어란 항상 어떤 한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10) 통상적인 표현이 가능하지 않기는 영어도 마찬가지다. 위의 인용 DK28B2에서 주어 [it]가 추가된 것을 보라. 독일어라고 사정이 다르지 않다: “der eine [Weg], dass [es] *ist* und dass [es] nicht nicht sein kann, ist die Bahn der Überzeugung, denn sie folgt der Wahrheit; der andere [Weg], dass [es] *nicht ist* und dass es sich gehört, dass [es] nicht ist, — das ist, so sage ich dir, ein völlig unerkundbarer Pfad. Denn das, was nicht ist, kannst du weder erkennen noch aussprechen; dergleichen lässt sich nämlich nicht durchführen.” 독일어 번역은 G.S. Kirk/J.E. Raven/M. Schofield, *Die vorsokratischen Philosophen. Einführung, Texte und Kommentare*, übers. von K. Hülser, Verlag J.B. Metzler, Stuttgart 1994, S. 291에서 인용. 파르메니데스가 말하는 ‘is’(하는 것)은 ‘하냐’(hen)이다(DK28B8). 그것은 분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운동하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는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다. 이처럼 ‘is’(하는 것)만 ‘is’한다고 함으로써 파르메니데스는 ‘여럿’(多)의 존재와 변화를 부정한다. 그러나 ‘여럿’의 존재와 변화는 엄연한 사실이다. 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현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럿’의 존재와 변화를 수용하려면 ‘is not’을 인정해야 한다.

11) 서술의 고전적 논의에 대해서는 Arist., *De Int.* 5 (17a7 이하) 참조. ‘ti kata tinos’의 구조에

로,¹²⁾ 의미론적으로 서술문은 어떤 것(주어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 한 개념에 포섭된다는 걸 말하는 게 된다. 의미론적으로 말하면 서술문에서는 어떤 것(주어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술어가 의미하는 것)과 결합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 문장의 논리적 형식을 파악하려면 그 문장의 의미론적 형식을 먼저 파악해 줘야 한다. 논리적(합축) 관계가 의미론적 형식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의미론적 형식이 곧 논리적 형식인 것이다.

현대 논리학의 분석에 따르면, 예문 (A-1), (A-2), (A-3)의 'is'들은 형태상으로는 동일하지만 그 의미까지 같지는 않다.¹³⁾ (A-1)에 등장하는 'is'의 경우 'exists'로 대체하더라도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문법적으로 그것은 술어다. 그러나 의미론적으로는 술어가 아니다.¹⁴⁾ (A-2)와 (A-3)의 경우는 어떤가. 두 경우 'is'는 모두 술어 — 동사구 — 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의미론적으로는 서로 다르다. (A-2)의 'is'는 그 좌우에 단칭명사('the Evening Star', 'the Morning Star')를 두고 있지만, (A-3)의 'is' 좌우에는 단칭명사('John')와 일반명사('clever')가 놓여 있다. (A-3)의 'is'는 계사지만 (A-2)의 'is'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계사 역할을 하는 'is'를 포함하는 (A-3) 형식의 문장이 표현하는 것은 대상 a가 개념 F에 포섭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논리학에서는 'Fa'로 기호화하여 쓴다. 그러나 (A-2) 형식의 문장은 'a'를 통해 지시되는 대상과 'b'를 통해 지시되는 대상이 동일한 것임을 표현한다. 이것은 'a=b'로 기호화된다.

대해서는 E. Tugendhat, *TI KATA TINOS. Eine Untersuchung zu Struktur und Ursprung aristotelischer Grundbegriffe*, Verlag Karl Alber, Freiburg/München 1958 참조. 의미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G. Frege, "Der Gedanke. Eine logische Untersuchung"(1918/1919), in: *Logische Untersuchungen*, hrsg. von G. Patzig,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1966, ²1976, S. 33 이하 참조.

12) '개념'(Begriff)과 관련해서는 G. Frege, "Über Begriff und Gegenstand"(1892), in: *Funktion, Begriff, Bedeutung*, hrsg. von G. Patzig,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1962, ⁴1975, 66-80쪽 참조. '대상'은 주어가 의미하는 것이고 '개념'은 술어가 의미하는 것이다.

13) 이하의 분석은 Tugendhat/Wolf (1983), S. 201-202에 따른다.

14) 왜 그런가에 대해서 Tugendhat/Wolf (1983: 제11장)은 칸트와 러셀을 중심으로 상론한다. 칸트의 경우는 『순수이성비판』의 신 존재 증명 논박(B 626 이하)과 "Der einzig mögliche Beweisgrund zu einer Demonstration des Daseins Gottes" (1762), in: *Gesammelte Schriften*, hrsg. von der Königlich P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Bd. 2, Weidmann, Berlin 1905, S. 73 참조. 그리고 러셀의 경우는 "On Denoting", *Mind* 14 (1905), 479-493쪽과 "The Philosophy of Logical Atomism" (1918), in: *Logic and Knowledge*, George Allen & Unwin, London 1956, p. 255 참조.

(A-2)의 ‘is’는 ‘is identical with’로 바꿔놓더라도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A-3)의 ‘is’는 그렇게 대치할 수 없다. (A-2)의 ‘is’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는 ‘is identical with’에는 ‘is’라는 말이 또 한 번 등장한다. 이 ‘is’는 (A-3)의 ‘is’와 그 의미가 같다. 이것은 곧 ‘is identical with’의 ‘is’가 계사라는 얘기다. ‘is identical with’의 ‘is’가 이어주는 일반명사는 물론 두 자리로 되어 있는 ‘identical with’이다.¹⁵⁾

나. 플라톤의 문제의식

위와 같이 엄밀하게는 아니지만 ‘is’의 여러 의미를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처음 알아차렸던 사람은 플라톤이다. 그는 『소피스트』에서 거짓 명제 문제를 다루다가 논의를 일반화하여 서술의 물음으로 넘어간다. 어떻게 한 대상을 여러 이름으로 지칭하느냐는 것이다. 어떻게 한 대상에 여러 술어를 가져다 붙일 수 있느냐는 말이다.¹⁶⁾

플라톤은 최초로 ‘is’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물었다. being(그리스어로 ‘to on’ 또는 ‘to einai’)이란 무엇이나는 것이다.¹⁷⁾ 일찍이 자연철학자들은 “온기가 만물의 원소다(The hot *is* the element of all things)”, “냉기가 만물의 원소다(The cold *is* the element of all things)”는 식으로 말했다. 이에 플라톤은 그 ‘is’하는 것, 즉 being은 무엇이나고 묻는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 being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¹⁸⁾는 것이다. being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이야말로 플라톤의 ‘최고최대의’ 물음이었다.

플라톤은 이 물음이 난해한 물음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그는 『소피스트』에서 이렇게 말한다.

자, 우리가 난관에 봉착해 있으므로, ‘being’(‘on’)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때 여러 분이 내심 연표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남김없이 밝혀주시오. 분명 여러분은 그것을 오래전부터 훤히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전에는 아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뭐가 뭘지 도통 알 수가 없기 때문이오. [Soph. 244a]

15)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G. Frege, “Über Begriff und Gegenstand”, S. 68 참조.

16) Soph. 251a.

17) Soph. 243d, 244a, 244b. 플라톤은 명사화한 부정법 ‘to einai’(243e)와 분사형 ‘to on’(244b)을 병용하나, 대개는 무차별적으로 쓰는 것 같다. G. Martin, *Allgemeine Metaphysik. Ihre Probleme und ihre Methode*, Walter de Gruyter, Berlin 1965, S. 10 참조.

18) Soph. 243e.

플라톤은 여기서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 “우리도 전에는 알았었다”는 말은 『파이돈』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말이다.¹⁹⁾ 『파이돈』을 쓸 당시에는 이데아론이 이데아들의 being을 설명해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데아가 ‘실체’(ousia)라고, 이데아가 참으로 ‘is’하는 것이라고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당시에는 알 수 없었다. 그걸 안 것은 한참 뒤의 일이다. 이데아가 참으로 ‘is’하는 것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의문이 생겼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피스트』와 『파르메니데스』의 문제의식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말한다. 전에는 아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도통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다고.

이런 일을 플라톤만 겪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존재론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예외가 아니었다. 『형이상학』 7권1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탐구되지만 항상 난관에 봉착하는 물음은 being이란 무엇인가이다. [Met. 1028b2-4]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being이란 무엇이나고 묻고 있다. 그의 『형이상학』은 바로 이 물음에 대한 그의 답안이다. 그의 새로운 점은 being의 물음을 실체의 물음으로 대체한 것이다: “being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실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다름 아니다.”²⁰⁾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실체론이 곧 존재론이다. 플라톤이 존재론이 어떤 학문인지를 규정했다면, 존재론을 독립분과로 확립한 이는 아리스토텔레스라 하겠다.

2.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초

가. ‘being’의 다의성과 구심점 의미

being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적 통찰은, being은 여러 의미로 쓰인다는 것이다.²¹⁾ 그러면 being은 얼마나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5권7장의 분석에 따르면, ‘is’(하는 것) 내지 being은 크게 네 가지 의미로 쓰인다.

19) Martin (1965), S. 7 이하 참조.

20) Met. 1028b4.

21) Met. 1003a33, 1028a10. 이 문제에 대해서는 Fr. Brentano, *Von den mannigfachen Bedeutungen des Seins nach Aristoteles*, Herder, Freiburg i. Br. 1862 참조.

- (C-1) The righteous doer *is* cultured.
 (C-2) The senses of ‘being’ are just as many as the figures of predication.
 (C-3a) Socrates *is* cultured.
 (C-3b) The diagonal of the square *is not* commensurate with the side.
 (C-4) Some of the things *are* potentially, others in complete reality.

(C-1)의 ‘is’는 그 (문제의)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우연적으로’ 또는 ‘부대적으로’ 교양 있음을 의미한다(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교양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의롭게 행동한다는 것과 교양 있다는 것이 뜻하지 않게 한꺼번에 병발한 경우이다. (C-2) 식의 being은 다시 여러 의미로, 즉 ‘서술의 형식’만큼이나 다양한 의미로 나뉜다. 이른바 범주가 그것이다. 범주의 가짓수만큼이나 많은 수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C-3a)의 ‘is’는 소크라테스가 교양 있다는 것이 ‘참(말)임’ 또는 ‘사실임’을 의미하고, (C-3b)의 ‘is’는 대각선이 변과 약분된다는 것은 ‘거짓임’ 또는 ‘사실이 아님’을 의미한다. (C-4) 식의 being은 ‘잠세적임’과 ‘활성적임’을 의미한다. 잠세적이라 함은 본성이 아직 활짝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활성적이라 함은 본성이 완전히 활짝 펼쳐져 있음, 정점 또는 목표에 도달해 있음을 의미한다. 부대적이라는 의미의 being(C-1), 서술적이라는 의미의 being(C-2), 참이라는 의미의 being(과 거짓이라는 의미의 non-being)(C-3), 그리고 잠세태에 있다는 의미의 being과 활성태에 있다는 의미의 being(C-4) —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구별하는 being의 의미들이다. 이들 하나하나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 6권2장과 3장에서 논하는 바에 따르면, 부대적이라는 의미의 being은 존재론의 탐구대상에서 배제된다.²²⁾ 학적 앎이란 항상 똑같은 양태를 취하거나 대체로 같은 양태를 취하는 것을 대상으로 성립하는 것인데,²³⁾ 부대적인 것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대적인 것의 원인은 종잡을 수 없이 많기 때문이다.²⁴⁾ 참이라는 의미의 being(과 거짓이라는 의미의 non-being)은 어떠한가. 『형이상학』 6권4장에 따르면, 참과 거짓은 ‘사고 속에 있는’ 것이지 ‘(시·공간상의) 구체적인 사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²⁵⁾ 참과 거짓은 ‘결합’과 ‘분리’, 즉 긍정하고 부정하는 데서 성립하는 것이라는 얘기다.²⁶⁾ 참과 거짓은 논리학에서 논의

22) Met. 1026b3-4, 1027b33-34.

23) Met. 1027a20-21.

24) Met. 1027b34.

25) Met. 1027b25-27, 29-31.

26) Met. 1027b18-25.

될 성질의 문제지 존재론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참이라는 의미의 being(과 거짓이라는 의미의 non-being) 또한 존재론의 탐구대상에서 배제된다.²⁷⁾ 부대적이라는 의미의 being과 참이라는 의미의 being은 ‘엄밀한 의미의’ being 축에 들지 않는다.²⁸⁾ 엄밀한 의미의 being에 속하는 것은 ①서술적이라는 의미의 being과 ②참상태에 있다는 의미의 being, 활성화에 있다는 의미의 being뿐이다.

그러면 서술적이라는 의미의 being에서 ‘서술의 형식’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 (D-1) John *is* a man.
- (D-2) John *is* white.
- (D-3) John *is* six feet tall.
- (D-4) John *is* taller than Tom.
- (D-5) John *is* in the marketplace.
- (D-6) John *was* blue in the face yesterday.
- (D-7) John *is* sitting in a chair.
- (D-8) John *is* armed.
- (D-9) John *is* cauterizing a wound.
- (D-10) John *is* to be lanced.

(D-1)의 ‘is’는 실체(*what a thing is*)를 의미하고, (D-2)의 ‘is’는 성질을, (D-3)의 ‘is’는 분량을, (D-4)의 ‘is’는 관계를, (D-5)에서 (D-10)까지는 각각 장소, 시간, 상태, 소유, 능동, 수동을 의미한다. ‘is’(하는 것) 내지 being의 의미가 이처럼 다양하다. 이들 다양한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존재론의 과제인 것이다.

그러면 ‘is’(하는 것) 또는 being의 다양한 의미를 어떻게 탐구할 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양한 의미들에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²⁹⁾ being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것들이 아무렇게나 뒤죽박죽 제멋대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³⁰⁾

27) Met. 1027b33-34.

28) Met. 1027b31.

29)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하나의) 의미’란 ‘pros hen’(1003a3-4, 1030b2)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G.E.L. Owen, “Logic and Metaphysics in Some Earlier Works of Aristotle”, in: *Aristotle and Plato in the Mid-Fourth Century*, ed. I. Düring and G.E.L. Owen, Elanders Boktryckeri Aktiebolag, Göteborg 1960, p. 169에서는 ‘pros hen’이 ‘focal meaning’으로 표현되고 있다.

30) Met. 1030a34: *mēte homōnymōs ... mēte hōsautōs*.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한석환, 『존재와 언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 도서출판 길, 서울 2005, 182-199쪽 참조.

제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하나의’ 의미를 고리로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³¹⁾ 단골로 인용되는 예는 ‘건강한’의 다양한 의미이다.³²⁾ ‘건강한’은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그 모든 의미는 하나의 의미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어 그렇게 사용된다. 문제의 중추적 의미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할 때의 ‘건강’이다. 그 밖의 다른 의미들은 이 건강에서 전용된 것들이다. 어떤 것은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어서 ‘건강한’ 것으로 불리고, 어떤 것은 건강을 촉진시키는 것이어서, 또 어떤 것은 건강의 징후여서 ‘건강한’ 것으로 불리는 것이다.³³⁾ 이것들은 모두 사람의 건강과 어떤 식으로든 얽혀 있기에 ‘건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being’의 경우도 마찬가지다.³⁴⁾ 그것은 위에서 본 것처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그것은 실체(D-1)를 의미하기도 하고, 성질(D-2)과 분량(D-3)을 의미하기도 하고, (D-4)에서 (D-10)까지의 범주를 의미하기도 한다. being에 이처럼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하나의 의미가 있다. 문제의 대상이 ‘무엇인가’(D-1)를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실체를 의미하는 being의 용법이다.³⁵⁾ 나머지 의미들은 실체의 성질이고 분량이고 관계이기에 being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처럼 실체가 구심점 역할을 하므로 실체의 being이 구명되면 나머지 being의 의미들도 밝혀지지 않겠는가. 관건은 구심점 역할을 하는 실체의 being이다. 실체의 being이 설명되면 나머지 다른 ‘존재자들’의 being은 고치에서 실을 갖듯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 구상이다. 물어야 할 것은 그러므로 실체의 being, 즉 실체의 실체됨, 실체의 실체성이다.

나. ‘존재론’의 이름들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건강한’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 다양한 의미들은 ‘건강’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어 있기에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러면 ‘건강한 것들’에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먼저 ‘건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건강하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

31) Met. 1003a33, 1030b3 등 참조.

32) Met. 1003b1 이하에서는 ‘의술적’(iatrikon)의 다양한 의미가 예시된다.

33) Met. 1003a35-b1.

34) Met. 1028a10-20 참조.

35) 영어에서도 ‘being’은 통상 ‘substance’의 동의어로 쓰인다. J.S. Mill, *A System of Logic, Ratiocinative and Inductive* (1843), in: J.M. Robson (ed.),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 VII, University of Toronto Press, Toronto 1973, Liii.2 참조.

면서 건강한 것들을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건강(하다는 것)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것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다. 건강(하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학문’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³⁶⁾ 그러나 건강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다. 다른 경우들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being(ta onta)을 being으로(hē onta) 놓고서 고찰하는 것 역시 분명히 하나의 학문이 하는 일이다.”³⁷⁾ ‘being’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거기에 구심점 역할을 하는 실체라는 의미의 being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한 대상에 대해 ‘그것이 어떤 성질의 것’이라든가 ‘그것의 무게가 얼마 된다’(분량)라든가 ‘그것이 어디에 있다’(장소)는 식의 얘기를 아무리 길게 늘어놓더라도 문제의 대상이 사람인지 꽃인지 나비인지 모를 것 같으면 그런 언급들이 곁돌게 되어 문제의 대상에 대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것이나 다를 바 없게 된다. 그런 식의 언급들이 유의미한 언설이 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이 필수적이다. 문제의 대상이 ‘무엇인가’(what it is)가 밝혀져야 그것의 성질이나 분량 등에 대한 언급도 유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성질을 성질에게 해주고 분량을 분량에게 해주는 ‘존재’의 근거이고 동시에 그것들의 무엇임까지 확인시켜주는 인식의 근거인 것이다. 그래서 문제의 대상의 ‘무엇임’, 즉 실체의 범주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실체는 ‘제일가는’ 것이다.³⁸⁾

실체는 다른 ‘존재자’들의 being의 담지자이자 다른 ‘존재자’들의 이름의 출처가 되는 것이다. 무릇 학문이란 ‘제일가는’ 것을 대상으로 성립하는 것이거니와, 실체가 제일가는 것이라 할진대, ‘철학자’가 탐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는 두말할 필요 없이 확연하다.³⁹⁾ 실체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제의 학문은 실체론(Ousiologie)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문제의 학문을 제일가는 것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제일철학’(prōte philosophia)이라 부른다.⁴⁰⁾ 그런가 하면 여러 실체들 가운데서 ‘최고류’를 다룬다는 점에서 ‘신학’(theologikē)이라 부르기도 하고,⁴¹⁾ 제일가는 원리와 원인을 다룬다는 점에서 ‘지혜’(sophia)라 부르기도 한다.⁴²⁾ 후대에 붙여진

36) Met. 1003b11.

37) Met. 1003b15-16, 1003a21-22, 1003b21-22도 참조.

38) Met. 1028a31-b2 참조.

39) Met. 1003b16-19.

40) Met. 1004a4, 1026a30.

41) Met. 1026a19.

42) Met. 981b28.

이름대로라면 ‘형이상학’ 또는 ‘존재론’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모두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의 이념을 표현하는 명칭들이라 하겠다.

다. ‘존재론’의 탐구대상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철학이라 불렀던 ‘존재론’은 무엇을 탐구하는 학문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4권 첫머리에 나오는 장들에 따르면, 존재론의 탐구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대별된다. ①being으로서의 being, ②being에 자체적으로 속하는 것들, ③being의 제일가는 원리와 최종적인 원인, ④모든 being에 적용되는 최고의 근본원리들이 바로 그것이다.⁴³⁾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 규정 중 가장 친숙한 것은 ‘being으로서의 being(to on hē on)의 탐구’이다.⁴⁴⁾ 복수형으로 표현하여 ‘ta onta hē onta’의 탐구라고 하기도 한다.⁴⁵⁾ 그러니까 존재론은 ‘모든’ being을 탐구하는 것이지 특수 영역의 being을 탐구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존재론 이외의 (특수)학문들은 being의 어떤 한 ‘부분’⁴⁶⁾, 즉 특정 ‘부류’⁴⁷⁾의 being을 다룬다. 그것들은 being을 ‘보편적으로’⁴⁸⁾ 다루거나 ‘being으로서의 being 일반’⁴⁹⁾을 다루지 않는다. ‘단적인 의미에서의 being’⁵⁰⁾이니 ‘being 자체’⁵¹⁾니 하는 표현도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들이다. ‘to on hē on’의 ‘hē’(~로서)는 이따금 ‘kath’ hoson’(~인 한에서)으로 대치되기도 한다.⁵²⁾

그러면 존재론의 탐구대상을 규정하는 이상과 같은 동의적 표현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우선 ‘to on’이라는 표현은 being, 그러니까 모든 being을 의미한다. 그것은 특정 부류의 being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to on hē on’에 나오는 ‘hē’나 그것의 대체적인 표현 ‘kath’ hoson’ 역시 문제의 being이 특정 영역에 한정된 being이 아님을 말한다. 이를 종합하면, 존재론은 being을 탐구하되 그것을 그냥 being으로 놓고서 탐구한다는 것이다. ‘모든’ being에 해당하는 성질과 관련하여 being을 탐구하는 것이 존재론

43) Met. 1003a21-32, 1005a21-29 참조.

44) Met. 1003a21.

45) Met. 1003b15-16: “the things which are, *qua* being”.

46) Met. 1003a24

47) Met. 1025b8.

48) Met. 1003a24.

49) Met. 1060b31-32.

50) Met. 1025b9.

51) Met. 1028a3.

52) Met. 1061b4, 9.

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존재론은 'being'으로서의 'being'만 고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being에 자체적으로 속하는 것, 즉 그러한 being을 규정하는 것들도 존재론의 탐구범위에 속한다. being으로서의 being을 규정하는 것이란 그것에 술어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being' 자체이다. 또 'being'과 대립적인 'not being'도 술어에 포함된다. 'being'과 외연이 같은 '하나',⁵³⁾ '하나'와 대립적인 '여럿'⁵⁴⁾도 마찬가지다. 그밖에 실체, 성질, 분량, 관계 등의 범주도 술어로 간주된다. 뿐만 아니라 각 범주의 단일성('하나')과 다수성('여럿')도 존재론의 탐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실체의 범주에서는 동일성과 상이성이 그것이고, 분량의 범주에서는 동등과 부동이, 성질의 범주에서는 유사성과 비유사성이 그것이다.⁵⁵⁾ 그 밖의 다른 범주들의 단일성과 다수성은 특별한 명칭이 붙어 있지 않다. 이들 외에 유와 중, 전체와 부분, 이전과 이후, 운동과 정지 등도 존재론의 탐구대상으로 꼽을 수 있다.⁵⁶⁾ 어떤 의미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 5권에서 열거하고 있는 규정들도 being의 술어에 포함시킬 수 있다.⁵⁷⁾ 그럴 경우 '원리', '원인', '원소', '필연성', '활성태', '잠세태', '본질' 등과 같은 개념도 being의 술어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⁵⁸⁾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 1권에서 '지혜'를 제일가는 원리와 원인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규정한다.⁵⁹⁾ 원리와 원인은 거기서 네 가지로 나뉜다. 이른바 형상인, 질료인, 운동인, 목적인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지혜'가 할 일이란 모든 사물의 최종적인 형상인, 제일가는 질료, 최초의 운동인, 최종적인 목적을 발견하는 것일 것이다.⁶⁰⁾ 『형이상학』 4권에 가서는 '지혜'가 being으로서의 being을 탐구하는 학문임이 드러나는데, 그럼으로써 그것은 being으로서의 being의 제일가는 원인과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규정된다.⁶¹⁾ 존재론의 이러한 규정이 오늘날 원형 그대로 유지되고 있

53) Met. 1003b22-1004a4.

54) Met. 1004a10.

55) Met. 1003b33-36, 1004a17-20 참조.

56) Met. 1004a20-21, b29, 1005a16-17 참조.

57) Thomas Aquinas, *In duodecim Libros Metaphysicorum Aristotelis Expositio* (1340), ed. M.R. Cathala, Marietti, Turin 1950, p. 208 참조.

58) E. Specht, *Sprache und Sein*, Walter de Gruyter, Berlin 1967, S. 5 참조.

59) Met. 981b27-29.

60) Met. 983a24-983b1.

61) Met. 1003a26-32.

지는 않지만, 제일가는 원인의 탐구와 결부된 문제들 중 일부는 오늘날도 ‘being의 원리’, ‘being의 구조’ 같은 표제 아래서 여전히 논의된다. 그런가 하면 ‘이유율’의 논의에 통합된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being의 ‘본질근거’, ‘존재근거’ 등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함께 다루지기도 한다.⁶²⁾ 그리고 운동인과 목적인은 인과성과 목적론의 물음으로 대치되었다.⁶³⁾

being으로서의 being을 탐구하는 학문 — 존재론 — 은 모든 being에 적용되는 최고의 공리도 탐구해야 한다.⁶⁴⁾ 모순율과 배중률이 그러한 공리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든 being에 적용되는 근본원리이기도 하지만, 모든 논리적 추론의 공리이기도 하다.⁶⁵⁾ 후대에 가서는 이들 최고의 공리에 동일률과 충족이유율이 추가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 4권4장-6장에서 모순율을, 그리고 7장에서 배중률을 집중 논의한다.

3. ‘존재’ 물음의 한국어 버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초한 존재론의 체계는 중세에 거의 그대로 수용되었다. 명칭만하더라도 ‘형이상학’, ‘제일철학’, ‘지혜’, ‘신학’ 같은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일례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전체 제일철학을 ‘지혜’라 부르고, 존재론의 분과를 ‘형이상학’, 제일원리들의 탐구를 ‘제일철학’, 신학적 부분을 ‘신학’이라 불렀다.⁶⁶⁾ 전체적으로 구조개편을 겪은 것은 근대의 볼프에 와서의 일이다. ‘지혜’라는 이름 대신 ‘형이상학’이 사용되고, ‘형이상학’은 다시 ‘일반 형이상학’과 ‘특수 형이상학’으로 나뉘었다. ‘일반 형이상학’을 불르는 ‘존재론’이라 불렀고, ‘특수 형이상학’은 ‘합리적 신학’, ‘합리적 우주론’, ‘합리적 영혼론’을 아우르는 명칭이었다. 칸트는 볼프의 체계를 거의 그대로 따랐다. 칸트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체계에 따라 다소간 편차가 있지만 그 기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적 체계였다.

가. 문법적 접근

그러면 이제 서양(고대)철학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만들었던 이른바 ‘존재’ 물음을 한국어로 반추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우선 위의 예문

62) M. Heidegger, *Vom Wesen des Grundes*, Klostermann, Frankfurt/M. ³1950, 특히 S. 47 참조.

63) Specht (1967), S. 6 참조.

64) Met. 1005a19-b19.

65) Met. 1005b5-9.

66) Thomas Aquinas (1950), Prooemium.

(A-1), (A-2), (A-3)를 한국어법에 맞게 옮겨보자.

(A-1k) 신은 있다.

(A-2k) 금성은 셋별이다.

(A-3k) 철수는 영리하다.

세 문장 모두 ‘주어-술어’ 관계를 기본 구조로 갖고 있다. 주어 다음에는 ‘은/는’이라는 조사가 공통으로 나온다.⁶⁷⁾ 세 예문에서 그것은 그 앞에 나오는 주어가 주제임을 나타낸다. 술어는 세 문장 모두 다르다. (A-1k)의 술어는 동사(‘있다’)이고, (A-2k)의 술어는 ‘명사+조사’의 결합 형태이고, (A-3k)의 술어는 ‘형용사+조사’의 결합 형태이다. (A-1k)의 ‘있다’는 어떤 사물이 (어떤 곳에) 존재함을 의미하고 지속, 소유 등을 나타낸다.⁶⁸⁾ (A-2k)의 ‘이다’와 (A-3k)의 ‘다’는 평서문 종결어미로서 문장의 종결을 나타낸다.⁶⁹⁾ 차이가 있다면 (A-2k)의 ‘이다’가 앞에 명사를 두고 있는 데 비해 (A-3k)의 ‘다’는 형용사와 결합되어 있다.

나. 철학적 접근

위의 세 예문이 우리에게 어떤 철학적, 의미론적 물음이라도 묻게 하는가? 혹자는 이들 예문이 (A-1), (A-2), (A-3)와 뭐가 다르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A-1k), (A-2k), (A-3k)]와 [(A-1), (A-2), (A-3)] 간에 문법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 아무런 차이도 없다면서 말이다.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파르메니데스나 플라톤이 맞닥뜨렸던 ‘존재’ 물음이 (A-1k), (A-2k), (A-3k)에서도 같은 식으로 제기된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is’들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데 무슨 ‘존재’ 물음이 제기된단 말인가. (A-1k), (A-2k), (A-3k)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있다면 주격조사 ‘은/는’과 종결어미 ‘(이)다’뿐이다. 문제를 일으킬만한 게 전혀 없어 보인다.⁷⁰⁾ 물론 서양(고대)철학자들이 직면했던

67) 주어 다음에 나오는 조사로 ‘은/는’과 ‘이/가’를 들 수 있는데, 김원섭 (『조사 ‘는’의 연구: 의미특성 및 기능을 중심으로』, 인학대 석사학위논문 1984)에 따르면, 담화론적 측면에서 볼 때 주제표지가 되는 것은 조사 ‘는’뿐이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대조, 강조, 한정, 지적, 주제 등이다.

68) ‘있다’의 본격적 연구를 위해서는 신진경, 『“있다”의 어휘 의미와 통사』, 태학사, 서울 2002 참조.

69) ‘이다’의 ‘-이-’와 관련하여 계사설, 용언어간설, 의존적 형용사설, 접사설 등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그렇게 깊이 들어갈 수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문장 “철수는 학생이 아니다”의 ‘아니’에 대해서도 부사어라는 주장과 명사라는 주장이 대립한다.

70) 남경희 (『서양철학의 사유 틀과 회랍어』, 『서양고전학연구』 24 [2005], 97쪽)의 관찰에 따르

문제를 유추조차 하지 못할 건 없다. 그러나 그것은 눈으로는 한국어로 된 문장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영어나 다른 서구어로 된 문장을 떠올릴 때나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한국어로 된 문장만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이른바 ‘존재’ 물음은 제기되지 않는다. (A-1k), (A-2k), (A-3k)와 함께 다음 예문을 보라.

(D-1k) 철수는 사람이다.

(D-3k) 철수(의 키)는 1m70cm이다.

여기에 ‘is’처럼 형태는 같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 의미론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문법적으로 중요한 어떤 구성요소라도 있는가. 없다. 각 요소가 일의적으로 각자의 역할만 충실히 하고 있을 뿐, 다의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는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지만 이른바 ‘존재’ 문제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는다.

맨 처음 나왔던 예문 (A-1)의 ‘is’는 완전 자동사로서 ‘있다/존재한다’(exists)를 의미하고, (A-2)의 그것은 동일성을 표현하고, (A-3)의 그것은 주어와 술어를 연결해 주는 계사 역할을 한다. (A-2)의 ‘is’는 계사의 ‘is’를 포함하는 ‘is identical with’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A-3)와 한테 묶는다면 위의 예문들은 [(A-1)]과 [(A-2), (A-3)]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으며 두 그룹의 ‘is’의 용법은 각각 존재적 용법, 서술적 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⁷¹⁾ 그러나 (A-1k), (A-2k), (A-3k)에서는 위와 같은 존재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을 찾을 수가 없다. 한국어에는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는 단일의 술어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 확인은 다음을 함축한다: 한국어의 논리에 따라 철학하게 되면 이른바 ‘존재’ 문제 같은 것은 유의

면, “희랍어의 존재사나 계사에 해당하는 ‘있다’와 ‘없다’, ‘이다’와 ‘아니다’는 [...] 한국어의 문장에서는 서구어에서와는 달리 논리적으로 판이하게 다른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문장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지도 않는다.” 이에 반하여 “희랍어의 전형적 구문은 「주어+술어」의 술어구문인데, 이런 구문에서 주축적인 동사는 einai이다”(103쪽).

71) Mill (1973: Liv.1) 역시 ‘being’의 두 가지 용법을 구별한다. 그는 하나의 단어가 이처럼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음을 간과함으로써 ‘Being (to on, ousia, Ens, Entitas, Essentia, and the like)’과 관련하여 술한 공리공론이 쏟아져 나왔다고 비판한다. 이와 달리 박희영 (『희랍철학에서의 Einai, To on, Ousia의 의미』, 『서양고대철학의 세계』 [한국서양고전철학회 편], 서광사, 서울 1995, 15쪽)은 einai 동사에서 존재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계사적 용법’) 외에 제3의 용법으로 진리적 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박희영 (1995: 21쪽)은 “희랍의 초기 자연철학 사상은 ... einai 동사의 다의성 때문에 형이상학적 사고의 차원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 ... einai의 다의성은 인간 사고의 혼돈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사고의 지평을 여는 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었다고 주장하는데, 필자의 생각은 Mill이나 아래에 나오는 Russell의 그것과 궤를 같이 한다.

미하게 제기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그것은 겉으로는 문제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체가 없는 가짜 문제(Scheinproblem)인 것이다. 이를 좀 더 밀고 나가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이 땅에서 한국어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존재론 논의는 허공에 떠있는, 뭔가 심오한 것을 다루는 것 같지만 실은 아무것도 다루는 게 없는 가짜 담론, 속 빈 강정이다.

일찍이 버트런드 러셀은 그의 『수리철학 입문』에서 “Socrates is human”과 “Socrates is a man”을 예로 들어 앞의 ‘is’는 주어와 술어의 관계를 나타내고 뒤의 ‘is’는 동일성을 표현한다고 지적한 다음, 이처럼 ‘is’라는 한 단어를 써서 저렇게 전혀 다른 두 가지 사고를 드러내는 것은 인류의 ‘치욕’(disgrace)이라고 말한 바 있다.⁷²⁾ 이를 적절히 현재 우리의 형편에 맞게 바꿔 말한다면 저렇게 전혀 다른 두 가지 사고 — 존재적 용법/서술적 용법이든 러셀의 경우에서처럼 주·술 관계/동일성이든 — 를 표현하는 데 각기 다른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은, 그리하여 의미론적으로 혼란을 겪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은 우리 한국인에게는 신의 ‘은총’(grace)이 아닐 수 없다.⁷³⁾

4. 존재론의 가능성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기초가 다져진 서양철학의 ‘존재론’은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칸트를 거쳐 하르트만, 하이데거, 화이트헤드, 러셀, 콰인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져 왔다. 그들의 ‘존재론’ 체계에서 주로 논의된 주제는 ‘존재’를 비롯하여 본질, 정의, 속성, 동일성, 필연성, 가능성 등이다. 이들 주제가 ‘존재론’의 울타리 안에서 논의된 까닭은 그것들이 ‘is/ist/esti’와 어떤 식으로든 — 직접적으로든 파생적으로든 의미론적으로든 —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말 그대로 ‘온톨로지컬’한 문제들이다.

그러나 한국어로 철학하는 우리에게 저들 문제는 최소한 그것들이 애초 제기된 것과 같은 식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인 것 같지만 실은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 한국인에게 아예 철학적인 문제가 될 수조차 없는 것이냐 하면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그것들 —

72) B. Russell, *Introduction to Mathematical Philosophy*, George Allen & Unwin, London 1953, p. 172.

73)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존재’를 논의하려는 한국 철학자가 있다면 그는 ‘치욕’을 자청하는 사람이겠다.

본질, 정의, 속성, 동일성, 필연성 등 — 은 나름대로 논의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철학적 주제들일 수 있다. 한국어에서도 서술 구조는 술어에 의해 지칭·기술되는 속성이나 그 밖의 다른 ‘범주’들이 주어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귀속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철학적 지평에서 유의미하게 논의될 수 있으려면 적절한 방식으로 새롭게 문제화 되어야 할 것이다.⁷⁴⁾ 서양 철학자들이 전통적으로 다뤘던 문제니까 우리도 다룬다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그것이야말로 철학하는 태도가 아닐 터이다. 그들에게는 질체절명의 심각한 문제였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도대체 유의미한 철학적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저러한 문제들이 한국어로 철학하는 우리에게 유의미한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문제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우리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나 그 밖의 다른 ‘존재론’ 관련 서양 철학서들을 읽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또 대학 강의에서 저들 저작을 다룰 때 굳이 독일어나 영어를 섞어가며 설명을 해도 겨우 알아들을까 말까 한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주제가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그런 가능성은 논외로 친다면 가장 큰 이유는 한국어로는 ‘존재론’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저들 저작에서 논급되는 내용은 ‘온톨로지’의 문제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적절한 정초 과정을 거쳐 본질이니 속성이니 필연성이니 하는, 서양철학이 전통적으로 다뤄왔던 ‘존재론적’ 문제들을 우리가 한국어로 다루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존재론적 문제들은 아닐 터이다. 우리의 경우 그것들은 존재론적 맥락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존재론’의 범위를 넘어서는 얘기지만 서양 철학자들이 붙들고 씨름하는 철학적 화두라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의 화두가 되는 것은 아닐 터이다. 역으로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문제가 저들에게는 하등의 문제도 아닐 수 있는 것이다. 철학의 보편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철학의 보편성은 철학함의 보편성으로 충분하다. 다루는 문제까지 똑같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개중에는 같은 것도 있지만 같지 않은 것도 있을 수

74) 그러나 이기상 (『존재 또는 있음: 우리말에서 읽어 내는 존재의 사건』, 『우리말 철학사전 1: 과학인간존재』 [우리사상연구소 엮음, 지식산업사, 서울 2001, 339-383쪽]이나 윤구병 (『윤구병의 존재론 강의: 있음과 없음』, 보리, 서울 2003) 식의 접근에 동의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말로 철학한다’고 하지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두 마디 인용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서 인용은 하지 않는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이상수 (『한국어로 철학하기』, 『창작과 비평』 106 [1999 겨울], 290-309쪽)의 문제의식에 대체로 동의한다.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같아야 한다고 하면서 왜 답안까지 같아야 한다고 하지는 않는지 모르겠다.⁷⁵⁾ 보편성은 확실성이 아닌 것이다.

니체는 그의 『우상의 여명』에서 “도덕은 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였다” (§43)고 말한다. 어쩌면 우리 한국의 철학이 그랬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어를 서양철학 — ‘존재론’ — 의 침대에 눕혀놓고 잡아 늘이지는 않았는지 반성할 일이다. 허벅지가 가려워 굽는다면서 남의 허벅지를 굽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참 고 문 헌

- 남경희, 「서양철학의 사유틀과 희랍어」, 『서양고전학연구』 제24집, 한국서양고전학회, 2005.
- 박희영, 「희랍철학에서의 Einai, To on, Ousia의 의미」, 한국서양고전철학회 엮음, 『서양 고대 철학의 세계』, 서광사, 서울 1995.
- 백종현, 「존재론」, 『철학사상』 16호 별책 제2권 제1호 철학의 주요 개념 1,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2003.
- 아리스토텔레스, 『소피스트적 논박』, 김재홍 옮김, 한길사, 서울 1999.
- 윤구병, 『윤구병의 존재론 강의: 있음과 없음』, 보리, 서울 2003.
- 이기상, 「존재 또는 있음: 우리말에서 읽어 내는 존재의 사건」, 우리사상연구소 엮음, 『우리말 철학사전 1: 과학·인간·존재』, 지식산업사, 서울 2001.
- 이상수, 「한국어로 철학하기」, 『창작과 비평』 제106호, 창작과비평사, 1999.
- 한석환, 『존재와 언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 도서출판 길, 서울 2005.
- Aristotelis Opera*, ed. I. Bekker, 2 vols., Berlin 1831.
- Platonis Opera*, ed., I. Burnet, 5 vols., Oxford 1900-1907.
- Brentano, Fr., *Von den mannigfachen Bedeutungen des Seins nach Aristoteles*, Freiburg i. Br. 1862.
- Diels, H./Kranz, W., *Die Fragmente der Vorsokratiker*, Berlin 1903, ¹⁷1974.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김인곤 외 옮김, 아카넷, 서울 2005).

75) 답안까지 같다고 하면 자기들이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일까.

- Diemer, A., Art. 'Ontologie', A. Diemer/I. Frenzel (Hrsg.), *Philosophie*, Frankfurt/M. 1967.
- Frege, G., "Über Begriff und Gegenstand" (1892), in: G. F., *Funktion, Begriff, Bedeutung*, hrsg. von G. Patzig, Göttingen 1962, ⁴1975.
- , "Der Gedanke. Eine logische Untersuchung" (1918–1919), in: G. F., *Logische Untersuchungen*, hrsg. von G. Patzig, Göttingen 1966, ²1976.
- Hegel, G.F.W., *Wissenschaft der Logik*, hrsg. von G. Lasson, 2 Bde., Leipzig 1948, Neudr. Bd. 1: Hamburg 1969, Bd. 2: 1971, 1975.
- Heidegger, M., *Vom Wesen des Grundes*, Frankfurt/M. ³1950.
- Kant, I., *Kritik der reinen Vernunft*, 2. Aufl. (1787), in: *Gesammelte Schriften*, hrsg. von der Königlich P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Bd. 3, Berlin 1911.
- , "Der einzig mögliche Beweisgrund zu einer Demonstration des Daseins Gottes" (1762), in: *Gesammelte Schriften*, Bd. 2, 1905.
- Kirk, G. S./Raven, J.E./Schofield, M. (ed.), *The Presocratic Philosophers. A Critical History with a Selection of Texts*, Cambridge 1957, ²1983.
- , *Die vorsokratischen Philosophen. Einführung, Texte und Kommentare*, übers. von K. Hülser, Stuttgart, 1994.
- Martin, G., *Allgemeine Metaphysik. Ihre Probleme und ihre Methode*, Berlin 1965.
- Mill, J.S., *A System of Logic, Ratiocinative and Inductive* (1843), in: J.M. Robson (ed.),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 VII, Toronto 1973.
- Owen, G.E.L., "Logic and Metaphysics in Some Earlier Works of Aristotle", in: *Aristotle and Plato in the Mid-Fourth Century*, ed. I. Düring and G.E. L. Owen, Göteborg 1960.
- Russell, B., "On Denoting", *Mind* 14, 1905.
- , "The Philosophy of Logical Atomism" (1918), in: *Logic and Knowledge*, London 1956.
- , *Introduction to Mathematical Philosophy*, London 1953.
- Specht, E., *Sprache und Sein*, Berlin 1967.
- Thomas Aquinas, *In duodecim Libros Metaphysicorum Aristotelis Expositio* (1340), ed. M.R. Cathala, Turin 1950.
- Tugendhat, E., *TI KATA TINOS. Eine Untersuchung zu Struktur und Ursprung aristotelischer Grundbegriffe*, Freiburg/München 1958.

- Tugendhat, E./Wolf, U., *Logisch-semantiche Propädeutik*, Stuttgart 1983. (『논리·의미론적 예비학』, 하병학 옮김, 철학과현실사, 서울 1999).
- Weissmahr, B., *Ontologie*, Köln 1985, ²1991. (『존재론』, 허재운 옮김, 서광사, 서울 1990).

Abstract

The Mirage of 'Jonjaeron'

— Is 'being' a meaningful philosophical question for us too?

— Hahn, Seok-Whan —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hilosophical discussions in Korean under the head of 'jonjaeron (*ontology*)'. Whether the so-called 'jonjaeronjok (*ontological*)' discourse would be a meaningful philosophical work — this is the main question of this article. My answer to this rather provocative question is negative. Nevertheless I would not say "no" to the possibility of a Korean ontology. One could, I think, go ahead with a Korean ontology, just with several qualifications.

The reason why the Korean ontological discourse could not be a meaningful philosophical work is as follows: In the Indo-European predicative sentence philosophically significant is the verb 'to be (*sein/ einal*)'. It occurs in the same form in every sentence. But its meanings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Hence the philosophic discipline of ontology which, according to Aristotle's definition, investigates the diversity of the meanings could not have nothing to do with the language. But there is no be-verb in Korean. Therefore in Korean there is nothing to raise an ontological question.

In a word, pursuing philosophy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semantics the so-called ontological question cannot be raised meaningfully. The greater part of the Korean ontological discourse is therefore empty. It looks like doing something serious, but deals with nothing.

※ **Key Words:** Being, First Philosophy, the Korean Language, Ontology, Substance.

투고 접수: 2010. 8. 19.

심사 완료: 2010. 9. 15.

게재 결정: 2010. 9. 20.